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 * 글 : 윤미경
- * 그림 : 최정인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28쪽
-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파이팅, 즐거운 사춘기 생활을 응원해요!”
 다양각색의 사춘기 터널을 지나는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책

누구나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부모는, 선생님은, 어른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선불리 조언하면 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아이들의 방향은 길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슬며시 아이 앞에 책 한 권 놓아주면 어떨까? 때론 직접적 조언보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다.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는 모두 다른 상황에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집이다. 누구든 건드리면 찔릴 것처럼 화를 쌓아둔 친구,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친구, 엄마 없이 생리를 맞이한 친구, 아빠를 향해 마음의 벽을 쌓은 친구, 엄마 몰래 다른 꿈을 꾸는 친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 받을 열심히 가꾸며 부지런히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 주요 독후활동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책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 달려라 불량 감자 · 예민한 아빠 · 오카새의 노래 · 달팽이도 멀미해, 나도 카멜레온
	사고력 쑥쑥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하기
	창의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표지 그림 속 아이와 거울에 비친 아이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2.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제목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나요?

※ (3~4)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동안 이 못된 고슴도치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음속에 있던 고슴도치가 가시를 말고 납작 엎드렸다.

가시는 솜털처럼 부드러워졌다.

눈물은 찢끔 났지만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졌다.

내 사춘기 동무 엄마를 달래 줘야겠다는

어른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들고 있어났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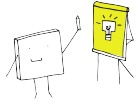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눈물을 닦고, 씨익 웃었다.

오늘 엄마에게 목욕탕에 가자고 해야겠다.

3.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던 고슴도치는 누구를 공격했나요?

4. 나도 엄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5. 주인공이 생각한 화해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가족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나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비유 표현을 읽고, 어떤 뜻으로 쓰인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뒤에 빈칸을 채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어 보세요.

비유 표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
특히 엄마가 따발총 처럼 잔 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특히 엄마가 ()처럼 잔 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바짝 마른 나뭇잎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		()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
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분홍빛 으로 변하려고 했다.		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으로 변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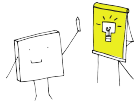
2. 밑줄 친 낱말 ‘노심초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쁜 병에라도 걸릴까 봐 늘 노심초사였어.

▶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이를 참고로, ‘노심초사’를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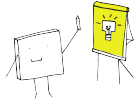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가) 엄마가 요즘 달라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엄마가 수상하다. 마치 발이 바닥에 안 붙어 있고 똥똥 떠다니는 도깨비처럼 뭔가에 홀려 있는 것 같다. 반찬도 형편없어진 지 오래다.

“피부가 완전 달 표면이야.”

이렇게 꾸밈하고는 썰쭉한 표정으로 밤마다 마사지를 하는 엄마. 옷장에서 발견한 화사한 분홍 원피스는 정말 대박이었다. 내 눈치를 봐 가며 베란다에 나가서 속삭이며 받은 전화만 해도 그렇다. 간혹 엄마 휴대전화에 손을 대면 성난 물소처럼 달려와 뺏어 버리는 건 또 뭐람!

(나) 아줌마보다 못생긴 우리 엄마. 갑자기 마사지를 하던 엄마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울컥 목이 뻐다.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 걱정하며 비밀로 한 것이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밤마다 그렇게 메신저 폐인이 됐던 걸까? 지금도 틀림없이 식탁에 앉아 메신저로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을 거다. 마음속에 있던 고슴도치가 가시를 말고 납작 엎드렸다. 가시는 솜털처럼 부드러웠다. 눈물은 찢끔 났지만 우울했던 기분이 짝 사라졌다. 내 사춘기 동무 엄마를 달래 줘야겠다는 어른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1. 지은이가 엄마에게 ‘사춘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엄마가 달라졌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어른들도 사춘기라고 할 만큼 마음이 복잡한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사춘기라면 나는 어떻게 달래 줄 수 있을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달려라, 불량 감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불량 감자 답지 않게 싹을 틔우고 벌써 뿌리까지 내리고 있었다. 제멋대로 자란 뿌리가 꼭 내 뺏뺏한 머리카락 같다. 나는 감자를 핵 밀쳐 버렸다. 컵에 담겨져 있던 감자가 맥없이 책상 위로 물을 토해 내며 쓰러졌다. 감자 뿌리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다시 물을 담고 감자를 컵에 담으려니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애쓴다. 못생긴 게. 누가 봐 준다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컵에 담아 주었으면, 좁은 컵을 억지로 돌이 나눠 갖지 않고 혼자만의 예쁜 컵에 담겨질 수 있다면……. 뭔가를 많이 뺏긴 기분에 자고 있는 가연이를 냅다 발로 차고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불량 감자는 역시 불량한 나와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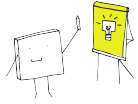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나)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달리기를 잘해서. 내가 가연이를 업고 뛸 수 있을 만큼 등짝도 넓고 힘이 세서 진짜 다행이다. 내 자신이 이렇게 대견하기는 처음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서 다행이다.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불량 감자지만 데구루루 구르기는 챔피언 감이다.

1. 나연이는 왜 자기의 모습을 싫어했나요? 또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왜 자기의 모습을 싫어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2. 나연이는 자기와 감자가 어떤 점이 닮았다고 생각했나요?

3. 가연이는 나연이 덕분에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연이가 되어 나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예민한 아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소울이가 부럽다. 전화를 끊고 나도 소울이처럼 울었다. 울어도 아무도 달려와 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자 우는 것도 그만두었다. 배가 또 사르르 아팠다. 인터넷을 검색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적어 두었다. 혼자 견뎌야 하는 건 참, 재미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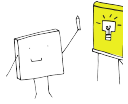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나) 아빠의 외로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한부모가정’ 모임보다 더 필요한 건 아빠의 예민한 촉각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새엄마가 아닐까. 언제까지 밥통 아줌마랑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할 순 없는 일이다. 나도 내 속옷 사이즈에 맞춰 골라 줄 새 식구가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아빠의 등을 떠밀어 줘야 한다.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가만히 액자를 놓혔다. 오래오래 눈맞춤을 했다.

심장이 조용히 뛰며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 ”

1. 서령이는 엄마가 없어서 어떤 점이 불편했고, 슬펐나요?
2. 아빠는 서령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3. 서령이는 엄마에게 뭐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에 들어갈 말을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4. 서령이가 초경을 맞이했을 때,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가 서령이처럼 엄마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오카새의 노래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방 천지에 새소리가 푸졌는다, 여그에선 도통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야. 언제 그 소리를 또 들음서 살 날이 올랑가.”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피아노 학원에서 덤으로 배웠던 오카리나를, 오히려 피아노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즐겨 연주하게 되었던 건 순전히 할머니의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한 어린 나의 보답이었다.

(나) 난 요새 오카리나를 불지 않는다. 오카리나가 주머니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늘 지니고는 다니지만, 언제부터인가 불기가 두려워졌다. 아빠는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지도, 아니 내가 요즘 오카리나를 불지 않는다는 것조차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다) “이리 가서 미안타. ”

떨리는 목소리로 뒤늦게나마 할머니의 말을 전해 드렸다.

“어, 어머니!”

아빠가 운다.

굵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아빠가, 아이처럼 운다.

말없이 앉아 있던 옥할머니가 다가가 가만가만 아빠의 등을 쓸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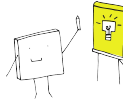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자네도 인자 잊어불소. 그것이 어무니한테 효도하는 길이것네. 고마우이. 자네 어무니 덕에 내가 호강하고 가네.”

주머니 속 오카리나의 가쁜 숨소리가 내 손을 통해 전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제대로 노래 부르지 못한 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달뜬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댔다.

1. (가)에서 이진이는 왜 오카리나를 즐겨 연주하게 되었나요?

2. (나)에서 왜 이진이는 오카리나를 불지 않게 되었을까요?

3. (다)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 것 같나요?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달팽이도 멀미해, 나도 카멜레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를 위한 건, 기도가 아니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맘이 어떤지 물어봐 주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외교관 같은 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목이 메어 왔다. 엄마에게 수없이 하고 싶던 말이였다.

“그렇게 간절하면서 그동안 왜 내색하지 않았니. 엄마……, 몰랐어.”

엄마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다.

“어떻게 해! 음악 때문에 아빠가 떠났다고 하는 엄마한테.”

나는 기타를 소파에 내려놓고 엄마를 밀어내며 현관으로 향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엄마한테도……, 노래를 불러 줘.”

(나) “효은아, 어떡하냐. 아기 엄마가 돌아왔대.”

학원을 마치자마자 친구들의 유혹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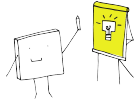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뭘, 원, 원래부터 떠날 아이였잖아. 아, 시원타. 그럼 나도 이제 해방인 거야?”

나는 양팔을 휘저어 대며 시원해 죽겠다는 듯 말했다. 재미없다. 곧 양팔을 접고 엄마 옆에 가 쭈그리고 앉았다. 목이 메어 왔다.

1. (가)에서 은요는 왜 엄마가 노래하는 걸 반대할 거라 생각했나요?

2. (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 효은이의 속마음은 무엇이였을까요?

3. (가)의 은요가 (나)의 효은이를 위해 노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 주면 좋을까요? 그 노래를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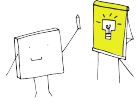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각 이야기의 제목에는 동물이나 채소 등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각각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제목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달려라 불량 감자		
오카새(오카리나)의 노래		
달팽이도 멀미해		
나도 카멜레온		

2. 여섯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등장인물들은 어떤 대답을 해 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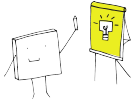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지은		
<달려라 불량 감자> 나연		
<예민한 아빠> 서령		
<오카새의 노래> 이진		
<달팽이도 멀미해> 은요		
<나도 카멜레온> 효은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의 단편들 중 가장 재밌게 읽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왜 그 이야기를 골랐나요?

※ 가장 재밌게 읽은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시 답안) 거울에 비친 아이는 울고 있다. 거울 속 아이의 모습이 진짜 속마음이 아닐까?</p> <p>2. (예시 답안) 고슴도치 같은 아이가 주변 사람들을 쿡쿡 찌르고 다녔고, 아이가 결국 미안해서 가시를 말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용일 거 같다.</p> <p>3. 엄마</p> <p>4. (예시 답안) 엄마한테 괜히 대들었던 적이 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p> <p>5. (예시 답안) 엄마와 목욕탕에 가려고 한다. 나는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말한다.</p>												
3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84 674 1386 1059"> <thead> <tr> <th>비유 표현</th> <th>어떤 뜻으로 쓰였을까?</th> <th>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th> </tr> </thead> <tbody> <tr> <td>특히 엄마가 따발총처럼 잔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td> <td>⇒ (예시 답안) 빠르게, 세게</td> <td>⇒ (예시 답안) 특히 엄마가 (새총)처럼 잔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td> </tr> <tr> <td>바짝 마른 나뭇잎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td> <td>⇒ (예시 답안) 부서질 것처럼 약하다.</td> <td>(바람에 바짝 마른 꽃)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td> </tr> <tr> <td>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분홍빛으로 변하려고 했다.</td> <td>⇒ (예시 답안) 행복해지다.</td> <td>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벚꽃)으로 변하려고 했다.</td> </tr> </tbody> </table> <p>2. (예시 답안) 노심초사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p>	비유 표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	특히 엄마가 따발총 처럼 잔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 (예시 답안) 빠르게, 세게	⇒ (예시 답안) 특히 엄마가 (새총)처럼 잔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바짝 마른 나뭇잎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	⇒ (예시 답안) 부서질 것처럼 약하다.	(바람에 바짝 마른 꽃)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	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분홍빛 으로 변하려고 했다.	⇒ (예시 답안) 행복해지다.	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벚꽃)으로 변하려고 했다.
비유 표현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만의 비유 표현으로 바꾸기											
특히 엄마가 따발총 처럼 잔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 (예시 답안) 빠르게, 세게	⇒ (예시 답안) 특히 엄마가 (새총)처럼 잔소리를 쏘아 대면 고슴도치는 화가 났다.											
바짝 마른 나뭇잎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	⇒ (예시 답안) 부서질 것처럼 약하다.	(바람에 바짝 마른 꽃) 같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아 드렸다.											
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분홍빛 으로 변하려고 했다.	⇒ (예시 답안) 행복해지다.	땅콩은 이내 색색 잠이 들었다. 등이 간질거렸다. 내 몸이 (벚꽃)으로 변하려고 했다.											
4쪽	<p>1. 예시 답안) 뭔가에 홀린 듯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어서.</p> <p>2. 예시 답안) 이혼한 아빠에게 예쁜 여자 친구가 생겨서 마음이 복잡했다.</p> <p>3. 예시 답안)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주고 싶다. 또 서로의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함께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p>												
5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72 1355 1380 1451"> <thead> <tr> <th>왜 자기의 모습을 싫어했을까?</th> <th>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을까?</th> </tr> </thead> <tbody> <tr> <td>⇒ 예시 답안) 가연이와 비교했을 때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했다.</td> <td>⇒ 가연을 업고 뒀 수 있을 만큼 등짝도 넓고, 힘이 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td> </tr> </tbody> </table> <p>2. 예시 답안) 못생겨서 뺨았다고 생각했다. 또 감자가 빠르게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달리기가 빠른 자기와 뺨았다고 생각했다.</p> <p>3. 예시 답안) 나연아,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항상 네가 나에게 부럽다고 하지만 난 건강한 네가 부러워. 자신 있게 네 얘기를 하는 너의 성격도 부럽고. 우린 쌍둥이지만 참 다르다. 다른 모습을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보자.</p>	왜 자기의 모습을 싫어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 예시 답안) 가연이와 비교했을 때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했다.	⇒ 가연을 업고 뒀 수 있을 만큼 등짝도 넓고, 힘이 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 자기의 모습을 싫어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 예시 답안) 가연이와 비교했을 때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했다.	⇒ 가연을 업고 뒀 수 있을 만큼 등짝도 넓고, 힘이 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6쪽	<p>1. 예시 답안) 초경을 시작했을 때나 브래지어를 해야 했을 때, 남자인 아빠에게 말할 수 없어 불편했고,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슬펐다.</p> <p>2. 예시 답안) 한부모가정 모임에 가입했고, 남자라서 잘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한다.</p> <p>3. 예시 답안) 엄마, 나에겐 새엄마가 필요해요. 아빠에게도 새 아내가 필요하고요. 하늘에서도 응원해 주세요.</p> <p>4. 예시 답안) “서령 엄마, 당신이 있다면 함께 축하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하늘에서도 우리 서령이 응원해 줘요. 내가 우리 서령이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요.”</p>												
7쪽	<p>1. 이진이의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에 오카리나를 불기 시작했다.</p> <p>2. 예시 답안) 할머니를 위해 불었던 오카리나를 불면 할머니 생각이 날 것 같아 불지 못한 것 같다.</p> <p>3. 예시 답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라.</p>												

8쪽

1. 아빠가 음악하는 걸 싫어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또 엄마는 은요가 외교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서 가수가 되겠다고 하면 실망할 거라 생각했다.

2. 예시 답안) “이제 이 꼬맹이가 없다고? 정말 보고 싶을 거 같은데. 어떡하지?”

3. 예시 답안)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 모든 존재를 응원한다는 마음이 담긴 노래라 효은이와 아기에게 들려주고 싶다.

9쪽

1.

제목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예시 답안)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른다.	예시 답안) 엄마를 아프게 하는 사춘기 소녀.
달려라 불량 감자	예시 답안) 울퉁불퉁 못생겼다.	예시 답안) 못생겼지만 튼튼한 아이.
오카새(오카리나)의 노래	예시 답안) 시원하고 맑은 소리를 낸다.	예시 답안) 할머니와 아빠의 마음을 보듬는 소리.
달팽이도 멀미해	예시 답안) 느리고 약하다.	예시 답안) 음악을 듣는 달팽이관.
나도 카멜레온	예시 답안) 색깔을 바꾸는 멧쟁이.	예시 답안) 아기를 위해 마음의 색을 바꾸는 사람들.

2.

인터뷰 대상	질문	대답
<고슴도치 가시를 말다> 지은	예시 답안) 엄마랑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예시 답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래도 이제 엄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달려라 불량 감자> 나연	(답안 생략)	
<예민한 아빠> 서령		
<오카새의 노래> 이진		
<달팽이도 멀미해> 은요		
<나도 카멜레온> 효은		

10쪽

⇒ 예시 답안) 오카새의 노래를 가장 재밌게 읽었다. 나도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진이의 마음에 공감이 되었다.

⇒ 예시 답안) 이진이에게,

이진아 안녕. 나는 ***야.

나도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너의 마음에 공감했어.

너도 슬픈데 아빠까지 스트레스를 줘서 힘들었겠다. 근데 아빠는 엄마를 잃어버린 거라

더 슬프실 것도 같아. 네 이야기를 읽고, 나도 아빠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어.

우리 가족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자!

그리고 나도 네 오카리나 연주를 들어보고 싶어. 정말 좋을 거 같아.

****년 **월 **일